

한민족의 원류를 찾는다

단일기원설 vs 다지역기원설

글_ 이종호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인류의 진화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단일기원설’과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는 ‘다지역기원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단일기원설은 우리 현생 인류로 보이는 호모 사피엔스인 크로마뇽인이 기원 전 15만~20만 년경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슬그머니 나타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선주민인 네안데르탈인 등을 대체 또는 멸종시켰다는 주장이다.

최초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단일기원설’

분자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인류가 약 1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차츰 전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에서 딸로 모계 유전되기 때문에 단일기원설은 아프리카의 여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의미로 ‘아프리카 이브 가설’(이하 ‘아프리카 가설’)로도 불린다.

영국의 인류유전학자 브라이언 사이크스는 ‘이브의 일곱 딸들’이란 책에서 전세계의 미토콘드리아 DNA형을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L형에서 나뉜 3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양인은 여섯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호모 에렉투스
이빨(중경박물관)

모든 인류의 선조가 겨우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가설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가설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류의 조상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가설에 의한 세계인 분류도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 티베트인, 몽골인 등은 에스키모, 아메리카 인디언과 유전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동일하다(북부 아시아인). 반면 중국 남부인은 캄보디아인, 태국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과 동일하다(남부아시아인). 즉 남부 중국인-북부 중국인과 한민족(韓民族)은 다른 갈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북부아시아인과 남부아시아인이 약 12만 년 전에 갈라진 것으로 본다.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중국 사람들은 남북아시아인으로 12만 년 전에 분지되었다가 다시 만난 한 핏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우리의 선조가 택한 경로를 대체로 두 갈래로 추정한다. 첫째는 과거 인류학에서 '버마 경로'라고 부르던 것으로 인도양과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동으로 이동한 것을 말한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중국땅에 현인류가 정착한 것을 6만~7만 년 전으로 보는데 중국에 도달한 사

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한반도와 일본에도 정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1만2천년 전까지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중국에 도달한 사람들이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정착한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

둘째 경로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을 택하여 실크로드나 시베리아를 거쳐 남진하는 것이다. 한민족의 일반적 인 특징은 추위를 이겨내기 쉽도록 실눈이 많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며 동그스름한 낫날, 속 쌍꺼풀, 검은머리, 단두형의 머리 등 체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흥규 교수는 바이칼 호 근처에서 6만~7만 년 전부터 한국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북부아시아인들이 1만3천 년 전에 빙하가 녹으면서 몽골루트를 거쳐 남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큰 홍수가 자주 일어났고, 바이칼 호의 저지대가 물에 잠기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해갔다는 것이다.

각종 고고학적 증거로 단일기원설 반박 거세

현인류의 시조가 아프리카의 이브에서 시작되었다는 '아프리카 가설'은 최첨단 유전자기법을 사용해 인류의 기원을 찾는 연구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았지만 다 지역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특히 황인종을 대표하는 중국과 북한에서는 단일기원설에 즉각 반대했다.

다지역기원설은 약 100만 년 전까지 인류는 한 뿌리였지만 호모 에렉투스(직립원인) 이전에 여러 갈래로 나눠져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특성에 따라 발달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인종적 특징은 각 지역에서 오랜 동안 진화해 온 결과라는 뜻이다. 이것은 현생 인류가 유럽과 동시에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황인종의 조상은 역시 황인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가설에 대해 가장 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화석인류학자들인데 그들은 고고학적 증거를 무기로 내놓았다. 그들은 최근 남부 중국에서 200만 년 전 초기 인류의 석기를 발견했고 그 조상들이 원인(猿

人)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다지역기원설을 지지해주는 자료로 제시한다.

북경박물관의 우 교수는 중국의 북경 근교에서 나온 북경원인(60만 년), 20만 년 전의 유골, 현대인들의 유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아세아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평평한 얼굴 등이 계속해 전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와 뉴기니 등의 원주민(8천 년 전까지 호주와 뉴기니는 연결되어 있었음)은 북경원인이 이주한 부류로 호주에서 발견된 돌칼을 근거로 대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중국에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호주의 찰스 도치 교수도 6만 년 전의 유골을 측정한 DNA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이브의 DNA와 매우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단일기원설 주장자들이 DNA 분석법으로 공격하자 이들 역시 DNA 분석으로 맞섰다.

북한학자들도 단일기원설을 강력히 반대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명쾌하다. 한민족은 70만~1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검은모루유적’을 남긴 대동강 유역의 원인이 려포사람과 덕천사람을 거쳐 승리산사람으로 발전하여 조선 옛유형 사람과 현대조선사람으로서의 특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들 원인·고인(古人)·신인(新人)의 화석이 한반도에서 체계적으로 발견된 것을 근거로 한민족의 기원은 한반도에 시초를 두고 있다는 ‘본토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민족의 혈청학적 특징도 제시한다. 사람들의 혈액형과 유전자형은 인종을 식별하고 각 민족의 친연관계나 차이를 입증해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정된다. 그런데 적혈구혈액형인 레주스식 혈액형에서 나타나는 항원의 양성인자 중 D항원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D항원의 양성인자는 아시아 인종에서는 99~99.5%, 유럽 인종에서는 85%, 아프리카 인종에서는 91% 정도인데 한민족은 D항원의 양성자가 99.71%에 달한다.

2005년 7월, 일본의 국립과학박물관 연구팀은 아시아인이 종전의 학설에 비해 45만 년 전인 180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과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된 자바원인의 치아와 턱 화석 100여 개의 특징을 아프리카 원인(原人)의 화석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

혔다. 이에 의하면 자바원인의 화석은 치아가 크고 턱이 단단해 180만 년 전 아프리카원인에서 나타난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원인은 진화하면서 치아가 작아졌는데 연구팀은 18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최초의 여행길에 오르면서 이 때 벌써 아시아 동부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또 한 번 다지역기원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 연구팀은 1989년과 1990년 중국의 운현 정곡에서 운현인이라 불리는 100만 년 전의 고인이 발견되자 더욱 기세를 올린다. 이것이 유명한 100만 년 전 홍적세시대의 운현인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 학자들을 더욱 흥분시킨 것은 북경원인보다 무려 40만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었다. 1990년에 또 다른 완전한 두개골이 발견되자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현대 인간의 조상이 근래에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는 아프리카가설이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었다. 2002년 12월 중국의 삼협댐 건설 현장 인근인 쓰촨(四川)성 평제(奉節)현에서 세계 최고의 악기가 발견되었는데, 이 악기는 약 14만 년 전 인류가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황완보 교수는 평제런(奉節人)으로 불리는 싱룽둥 고인(古人)은 약 12만~25만 년 전의 인류로서 이들이 악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다지역기원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구문화의 연계성 근거 ‘다지역기원설’ 힘 얻어

특히 미국 유타대학의 클레이턴 교수는 호모 에렉투스가 10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40만 년 전에 멸종됐으며,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났을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여 현생 인류가 원시 인류를 만났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두 종류의 머릿니가 발견되고 있는데 머릿니는 인간의 모발에서만 서식하며 인간의 피 없이는 하루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 종류의 머릿니는 현생 인류와 다른 원시인을 통해 진화했다는 것이다.

클레이턴 박사는 이제까지 확인된 머릿니는 전세계에



북경원인 발굴 장면

고루 퍼져있는 것과 미국 인디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이 중 전세계에 분포돼있는 머릿니는 호모 사피엔스에 기생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온 세계에 걸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다른 유전적 특징을 감안할 때 100만 년 이상 서로 고립돼 있었을 이 두 종류의 머릿니가 현생 인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사피엔스가 공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아시아에서 발견된 화석은 호모 에렉투스가 5만 년 전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기원설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반대는 중국사회과학원 왕웨이 교수로부터 제시되었다.

“서양의 구석기 문화를 보면 약 10만여 년 전 어떤 곳에서 기하형의 세석기들, 예를 들면 삼각형기·신월형기·제형기 등이 출현하며, 2만 년 전에는 더욱 정밀한 기하형의 세석기가 나왔다. 그 당시 이런 석기를 제작하

려면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석기 문화 중에서는 이런 기하형의 세석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세석기 제작 기술의 흔적도 없다. 이런 차이점은 중국의 구석기 문화와 서양의 구석기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 계통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왕 교수는 아프리카 가설에 의하면 ‘아프리카 이브’의 후예들이 중국으로 옮겨올 때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던 선진 석기 제작기술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석기를 가져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구석기 문화는 격변을 맞이해야 했는데도 중국에서 3만여 년 전 신인에게 어떠한 변화의 징조도 없으며, 중국 구석기 문화가 중단된 적도 없다. 적어도 외래문화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도 없는 것을 볼 때 서양의 구석기 문화와 중국 구석기 문화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고고학적으로 한 지역의 석기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달·전개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기 구석기시대에 석영을 석재로 사용한 자갈 돌석기 전통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자갈 돌석기 전통이 하나의 계통성을 가지고 후기 구석기 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단일기원설대로 인류가 이동해 간 자리를 따라 추적해 보아도 어떤 일관되고 동일한 성격의 문화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새로운 다른 집단이 이동해 들어가 기존 문화를 다 몰아내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단이 주변 지역에 산존하고 있던 문화와 접변을 이루며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다른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주장하는 다지역기원설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한국인의 기원과 다소 다른 면도 있다. 중국에서는 북경원인이 현대 아시아인의 주류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큰 틀에서 다지역기원설을 지지하면서도 북경원인이 한국인의 원류라고는 설명하지 않는다. 인류학자들이 한민족의 원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㉓